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7>]1986년 한라산 훼손지 복구 첫 용역

제1부 /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26>...한라산 훼손지 복구(상)

입력 : 2004. 09.20. 00:00:00



▲장구목 능선 훼손지 복구용 흙을 나르고 있는 헬리콥터가 한라산 서벽쪽을 날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한라산은 되살아나고 있는가. 비바람과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고 밟힌 한라산이 상처투성이로 중병을 앓아온지 수십년. 그동안 많은 노력과 처방이 있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병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라산 훼손실태에 대한 심각성이 제주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1986년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정상 서북벽에 이르는 등산로에 처음으로 자연휴식년제가 도입돼 탐방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으며 그해 서울대학교 농대농업개발연구소에 의뢰해 훼손지 복구공법 개발에 관한 기초적 연구와 실시설계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그 이후 ▷등산로 훼손지 복구 기본및 실시설계(91,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백록담 담수적량 보존용역(93, 선진엔지니어링) ▷남벽등산로·정상훼손지 기본 및 실시설계(93,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관음사등산로 및 장구목훼손지 복구기본계획 및 실시설계(95, ") ▷한라산정상 보호계획(97, ")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2000, 국토연구원) 등 중앙 및 지역 대학과 기술용역업체의 용역과업이 잇따랐다.

한라산 훼손규모도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한라산 훼손지는 22.5ha(225,870㎡)로 공식 보고됐다. 지난 2000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용역 결과다. 이는 지난 1993년 파악된 195,300㎡ 보다 15.7%, 30,570㎡가 증가된 규모다. 한라산 훼손지 면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게 사실이다. 2000년 조사 결과치는 93년 조사를 근거로 순증가분을 나타낸 것이었다.

훼손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리목등산로 주변 훼손면적이 전체 면적의 32.8%(74,000㎡)를 차지하여 가장 넓은 훼손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영실등산로 주변은 24.4%(55,000㎡)로 나타나 관음사나 성판악 등산로 주변의 각각 2.1%(4,620㎡), 0.6%(1,280㎡)에 비해 훨씬 높은 훼손면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산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 등반객 중 76.9%가 어리목과 영실 등 2개 등산로에 집중됐다. 한라산 등산로 주변의 훼손은 이용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상부 일대는 전체 훼손면적의 17.9%인 40,320㎡로 단위면적당 훼손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정상부는 지난 1986년부터 통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7년 동안 훼손 면적이 142.9%나 늘었다. 이는 등산객 답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초기 발생된 훼손지가 집중 강우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한라산 훼손은 하나의 요인이 아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진행돼 왔다. 연약한 지반과 열악한 환경조건하에서 집중적인 탐방객들로 인해 훼손이 더욱 가중돼 왔다. 이들 요인으로 인한 훼손은 표토유실, 식물생장 둔화, 식생 고사, 침식, 붕괴, 땅밀림, 샛길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인위적인 훼손의 경우, 탐방객의 답압 등 인위적 요인으로 자연적 토양침식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훼손은 등산로 주변에서 주로 발생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객은 매년 증가해 왔다. 1975년에 불과 4만2천여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90년대에는 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40만~55만명 정도가 한라산을 찾았다.

훼손은 등산객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아고산대 특유의 열악한 기후조건과 식생의 느린 회복력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들 요인으로 인해 표토유실, 식물생장 둔화, 식생 고사, 침식, 붕괴, 땅밀림, 샛길 형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정상 서북벽에 이르는 등산로 주변 사면 훼손지 복구현장.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